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적정화·보상책략 관련 변인 연구

-중산층 노인을 중심으로-

Variables that Affect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SOC) for Successful Aging Among Middle-Class Elderly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주거학과

석사 하정연*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교수 오윤자

Dept. of Child, Family and Housing Studies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Master : Ha, Jung-Yeon

KyungHee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the student life

Professor : Oh, Yoon-Ja

ABSTRACT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SOC), a concept defined by Baltes and Baltes, is known to predict successful ag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which factors affect Korean elderly people SOC.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a survey conducted between March and May 2001, on a sample of middle-class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over 60 years old. Two hundred and fifty four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e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Duncan test, Pearson correlations, multiple regressions, multiple response frequencies and sequential threshold method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In order to measure successful aging, the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Scale developed by Baltes, Baltes, Freud, and Lang (1996) was used. The SOC scale consists of four subscales, Elective Selection, Loss-based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irst, the level of SOC by various socio-demographic variables was examined. It turned out that health status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SOC. Also important was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Second,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SOC and duration of the marriage (negative), practicing a religion, health, and economic stability (all positive). Third, religion and health status affected SOC, but health was a stronger predictor. Those who practiced a religion and were healthy had a higher score in SOC as a whole. Fourth,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y their SOC score, and their ideas of successful aging were compared. The top- and middle-score groups considere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to be more important, whereas the bottom-score group regarded the social status as more important.

▲ 주요어(key words) :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SOC 모형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1. 서론

1. 문제제기

노화현상은 인류의 오랜 관심사였으나 최근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과정을 이해

*주저자 : 하정연 (akdong77@hanmail.net)

하기 위한 특별한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들로부터 학자들간에는 노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이선영, 1995). 또한 인구의 고령화는 산업혁명보다도 거대한 힘으로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킬 '혁명'이며,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한경혜, 2000).

특히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난 2001년 노인층 비율(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7%로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1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4%를 넘게 될 것으로 추계되므로,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에는 현재의 두 배 규모가 되고, 2030년에는 1016만 5천명으로 3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노년기의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때 먹고 살기에 바빴고 이제 막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노후의 삶의 질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효라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던 탓에 노후의 생활을 전적으로 후손들이 책임졌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제도가 보급된지 오래고,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져 가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노인들이 과거와 같은 대접을 바라기는 힘든 시대가 왔다(한경혜, 2000).

급속한 의학의 발달과 함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젊음을 바쳐 열심히 살아 온 사람이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전략은 과연 존재하는가. 분명한 것은 의식주의 해결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만이 반드시 성공적인 노후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점차 노령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적 수치를 볼 때, 이제는 노년기 삶의 질과 관련된 노인복지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연 누가 노인이며, 인간의 노령화는 언제부터 시작하며, 어떻게 성공적으로 노화할 수 있는가 등이 큰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노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관심에서 세계 도처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에 관해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춘의 분수'를 찾아 계속 젊음을 유지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성공적인 노화를 제대로 정의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학자들은 성공적인 노화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크게 심리학적 관점과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성공적인 노화 관련 연구들에는 인생만족도, 자기, 복지감, 심리적 안녕, 행복감, 생존과 신체적 기능, 지혜, 정신 건강, 삶의 질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노화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체의 생물학적 능력을 보존하는 성공적인 노화에 초점을 맞추거나, 인지적 지적인 수행능력의 유지로 정의하거나, 예술이나 신체 영역에서 계속되는 성취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 지표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정의를 내리는 것 또한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홍현방, 2002).

이렇듯 성공적 노화는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측정방법도 다양해서 연구들을 비교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한국적인 특성에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노화의 예측변인으로 증명된 Baltes & Baltes의 SOC 모형을 바탕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최근 제작된 SOC 척도와와의 관계를 통해 성공적인 노화의 관련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목적

Baltes(1990)는 평생발달심리학적 시각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연구하면서,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기제(mechanism)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평생발달에 관한 모형 즉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형(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이하 SOC 모형)'을 개발하고, 그 동안 평생발달이나 노년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해온 개체발생의 유형을 접목시키는데 관심을 두어왔다. 그들은 한 개인이 노화되어 감에 따라 선택, 적정화, 그리고 보상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를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그러한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의 원리는 단지 노년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평생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은 이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안지연,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SOC 전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성을 보기 위한 것이다. SOC 모형의 각 하위 영역들에 해당하는 선택, 적정화, 보상 전략은 주로 일상 생활에서의 태도나 행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본 연구는 Baltes(1996)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성공적인 노화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SOC 전략에 기반해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어떠한 변인들이 SOC 전략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SOC 전략의 사용수준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가?

2. SOC 책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3. SOC 책략의 사용수준에 의한 군집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 관련 문항은 어떠한 경향이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Rowe & Kahn(1987)은 기존의 노년학과는 달리 질병이 없는 상태로써 '보통의 노화'와 '성공적 노화'의 구별을 제안하였다. 이 두가지 노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보통의 노화'는 특별한 질환이나 기능장애는 없지만 연령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하강적 변화들로 질환에 걸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혹은 사회적 세계의 축소로 고독하고 활기차지 못한 날을 보내는 노년의 모습이다. 반면에 성공적 노화는 우리가 노화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여겨오던 이런 일반적 노화를 개인의 노력과 환경의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극복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Bengtson, Reedy & Gorden(1985)는 성공적인 노화를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 기준의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즉 객관적 지표로는 정신 건강 수준, 생애목표, 생생감과 지혜 혹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즉 행동의 가소성(plasticity)과 같은 기준이 있다. 주관적 지표로는 자아개념, 생화만족도, 자아존중감, 지각된 또는 개인적 통제와 같은 기준들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이와 같은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설사 이것만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아(self)에 대한 지각이 바로 '삶의 질'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김영선, 1996).

성공적인 노화를 구성하는 개념들에 관한 연구를 통한 정의를 살펴보면 Fisher, Bradley & Specht(1999)는 성공적 노화의 의미에 대한 조사에서 창조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성장, 자기 수용, 건강, 자율성, 목적의식 등이 성공적 노화를 구성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창의적 활동이 경쟁 및 목적의식, 성장 의식 등을 촉진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Crawford(1999)는 생활 만족, 사회적 만족, 건강에 대한 만족 등이 성공적 노화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Freund와 Baltes(1998)는 주관적 복지감, 긍정적인 감정, 외로움이 없는 것을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파악하였다. 반면 개인적 인생투자, 외향적 성격, 개방성, 지능, 주관적 건강, 연령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키부츠 공동체 내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는 높은 삶의 기대와 긍정적인 복지감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적 관

계의 유지, 사회적 역할의 안정성, 자신의 일을 소유하는 것 등이 성공적 노화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2002, 성혜영 · 유정현).

또한 본 연구에서 기반으로 하는 Baltes & Baltes(1991)는 사람들은 나이가 늙어 따라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이나 목표를 선택(selection)해서 그와 관련된 기술을 적성화(optimization)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부족함을 보상(compensation)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화란 선택과 보상 과정들이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친 일차적 통제를 최대화하도록 도울 때 이루어 진다고 보는 것이다.

2.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련연구 고찰

먼저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

독립적 생활의 가능여부를 성공적 노화의 기준으로 한 연구를 보면(Ford, Haug, Starge, Gaines, Noelker & Jones, 2000) 남성이며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고 자식들에게 의지하기 보다 다른 가족원 혹은 에이전시의 원조를 받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독립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Bales와 Lang(1997)은 노인이 보유한 자원을 성공적 노화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그 자원을 감각-인지 요인과 사회-성격 요인으로 나누고 이러한 자원이 풍부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4개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은 활동시간, 활동의 다양성, 지적활동, 사회적 관계활동, 문화적 활동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원이 가장 부족한 집단은 부정적 효과가 가장 컸다.

Scheidt, Humphery와 Yorgason(1999)은 성공적 노화에 실패하는 노인의 특징이 환경적 자원 접근성 부족이라고 여기고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Guse와 Masesar(1999)는 성공적 노화의 기준을 삶의 질로 보고 65세에서 84세 사이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대상자들은 건강상의 문제 및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삶의 질에 대해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가족 및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개인의 성격 특질, 복지적 측면 등이라고 답변하였다.

성공적 노화를 생의 만족으로 본 또 다른 연구(Ardelt, 1995)에서는 과거 객관적 삶의 조건이 신체적 건강,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조건, 물리적 환경, 사회적 관계망과 질 등이었다면 노년기의 생의 만족은 인지적, 반사적(reflective), 정서적 요소들로 결합된 지혜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Riggs(199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유지를 성공적 노화로 전제하였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남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남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해체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친구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관계

가 생성되기도 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Vaillant와 Mukamal(2001)은 부모의 사회적 계층, 가족 응집력, 우울증, 유전적 수명, 신체건강, 아동기의 기질 등 개인에 의해 조절 가능하지 않은 변인과 알콜 중독, 흡연, 결혼 안정성, 운동, 신체 건강 정도, 교육 등 개인에 의해 조절 가능한 변인들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우자가 사망한 남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Bergstorm & Holmes(2000)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사망 후 성공적 노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유리이론, 활동이론, 지속이론, 사회관계망 이론 중 활동이론 이라고 지적하였다(성혜영·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Baltes의 성공적 노화이론을 중고령근로자들의 직무수행과정에 적용해봄으로써 직무능력유지와 정서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직장생활에서의 성공적 노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김영선·윤진, 1997)결과 SOC 책략은 직무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정서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간의 SOC 책략은 중고령근로의 직무와 관련된 정서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반드시 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연(1997)의 SOC 책략과 대처행동양식,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SOC 책략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C 책략과 능동적인 대처행동양식과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상관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Baltes의 SOC 책략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주요한 관련변인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성공적 노화를 생활 만족의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한임섭, 1987)에서는 교육노년학의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란 창조적인 학습 혹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성혜영·유정현(2002)의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를 사회관계 지향 및 기능 중시형, 주관적 만족 및 부부관계 중시형, 복지 및 편함 추구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공통적인 요건으로는 경제력, 가족관계, 질병 예방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른 견해(한경혜, 2000)로 노인을 '문제'로 보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성, 노인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의 부정확성, 그리고 독립적,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인들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적 노화'의 모델이 노년, 노화에 대한 부정과 성취지향적 성공적 노화가 주요테마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는 노년층의 전반적인 문화, 실태에 대한 심층적 재검토, 논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성공적인 노화' 개념의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성공적인 노화 모형

본 연구는 Baltes & Baltes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SOC 책략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택·적정화·보상(SOC) 모형

Baltes & Baltes(1990)는 개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포함하는 전생애에 걸친 발달이 선택(selective), 적정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상(compensation)이라는 세 가지 요인과 연관된 과정이라는 새로운 성공적인 노화모델인 SOC 모델(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각 요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Selection)은 연령증가에 따른 쇠퇴와 감소분이 증가하므로 높은 수행을 유지할 수 있는 몇몇 특정 영역을 선택하고 그외 다른 영역은 무시하는 책략이다. 즉 환경적 요구와 개인적 동기, 기술, 생물학적 잠재능력 등이 일치하는 동시에 중요한 영역에 노력과 에너지 등 개인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적응기제이다.

둘째, 적정화(Optimization)는 일반적인 잠재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자신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영역의 수행을 최대화시키는 행동이다. 가소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연구들에서, 노인들도 이러한 적정화 과정을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Baltes & Lindenberger, 1988; Dixon & Baltes, 1986). 선택된 영역에서의 최대수준의 기능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비축 능력이나 자원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 과정은 부분적으로는 적절한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셋째, 보상(Compensation)은 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 문제해결 상황에 선택상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때, 특정한 학습행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발달적 쇠퇴분(상실분)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책략을 의미한다.

요약해보면, Baltes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SOC)모델'은, 노인들이 연령증가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영역 등에서 잠재능력 등이 쇠퇴하거나 감소를 경험하더라도, SOC 책략을 사용하여 '감소/변형되었으나 효율적인 삶(reduced/transformed but effective life)'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영선, 1996).

선택, 적정화, 보상의 과정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변화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온다.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일상의 활동들에 숙달

1)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원리'를 연구자는 '자신이 역량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그 효율성을 위해 다른 대안이나 책략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적정화, 보상책략의 경우 적정화는 최대화 또는 최적화, 보상의 경우는 대응전략 혹은 대처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노인들의 자기유능감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또한 노인들은 자아존중감, 자기가치감, 통제감, 독립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자아지각은 신체적 건강과 안녕에도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과 미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이룬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SOC 척도를 사용하여 P. Baltes, Freund 그리고 Lindenberger(1996)에 의해 시작된 경험적 연구들(예, COMPOSE 연구과제)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것들은 전반적인 인간 발달과정을 규정하고, 성공적 노화의 양상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로서, Baltes와 Baltes(1990)가 제안한 SOC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상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성장을 최대화하려는 성공적 발달을 강조하는 선택·적정화·보상 세 책략을 각기 독특하지만 서로 연관된 심리학적 과정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 역동적 관계를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위 연구에서의 세가지 주요 관심사는 첫째, 심리학적 평생발달에 대해 SOC 모형이 암시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둘째, 선택, 적정화, 보상을 경험적으로 측정하며, 셋째, 세 가지 책략이 심리학적으로 성공적인 발달을 하는데 각기 독특하지만 서로 연관되어 작용할 때의 역동성을 조사하는 데에 있다(안지연, 1997).

한편, SOC-Self라는 주제하에 진행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SOC-Self에서는 개인발달의 연구를 위해 이론적 SOC 모형을 행동에 적용시켰으며, 선택·적정화·보상의 세 과정에 대해 12문항씩의 SOC 질문지를 14-87세 성인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재검사 신뢰도나 다른 통계적 수치들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Berlim 노화연구의 현재까지의 결과에 따르면, 고령의 노인들(70-97세) 153명을 대상으로 9문항의 단축형 SOC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 역시 Baltes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이론을 지지해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성공적 노화의 주관적 지표는 자기보고식 SOC 책략관련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SOC 책략이 성공적인 노화의 예측변인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안지연(1997)의 연구에서도 SOC 책략과 삶의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성공적 노화를 예시해주는 지표라고 간주되고 있는데 이처럼 SOC 책략과의 상관이 높다는 것은 SOC 책략이 Baltes의 주장처럼 성공적 노화를 위한 주요한 예측변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SOC 책략의 사용수준을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로 여겨 관련변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다룬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학문적으로나 실제 노인생활면에서 익숙치 않은 개념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 보편적인 기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중산층을 선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기본생활고에 대한 욕구충족이 우선적일 것으로 보이며 본 논문은 초기의 연구이므로 본 개념에 대한 보편적인 경우를 도출하기 위해서 중산층 노인이며 설문지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근교,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연령이 60세 이상 남성, 여성 노인들로 복지관의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 2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SOC 척도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측정하기 위해 P. Baltes, M. Baltes, Freund와 Lang(1996)이 개발한 SOC 척도를 안지연(199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SOC척도는 임의적 선택(Elective Selection), 상실에 기반을 둔 선택(Loss-based Selection), 적정화(Optimization), 그리고 보상(Compensation)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SOC 척도는 선택부분에 있어 임의적 선택과 상실에 기반을 둔 선택으로 구분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선택, 적정화, 보상이라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 보려고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선택부분에 있어서 임의적 선택과 상실에 기반을 둔 선택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척도는 각 하위척도에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대상변인(target)과 방해변인(distractor)으로 되어 있으며, 응답자에게 두 변인을 동시에 제시해 주고 자신의 태도나 행동과 가장 잘 일치하는 변인을 선택하도록 한다. 전체 유형중 절반은 대상변인²⁾이, 나머지 절반에는 방해변인³⁾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실을 기반으로 하는 선택과 임의적 선택으로 구성된 선택 24문항, 적정화 12문항, 그리고 보상 12문항에 대해 각 대상변인 문항은 1점, 그리고 방해변인문항은 0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세 가지 하위척도별 점수를 총합하여 사용한다.

각 하위척도별 점수는 선택 24점, 적정화 12점, 보상 12점이었으며 세 가지 하위 척도별 점수를 합산하면 4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책략의 사용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SOC 척도는 안지연(1997)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전체문항의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각 하위척도는 선택책략이 .87, 적정화 책략이 .79, 보상책략이 .78로 나타났다.

2) 대상변인이란 성공적인 노화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방해변인은 대상변인과는 달리 성공적인 노화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가 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 SOC 척도 구성 내용

SOC 척도구성	변인	구성내용
선택	임의적 선택	대상 몇가지 혹은 가장 중요한 일이나 목표에 집중하고 전
		변인 넘한다는 내용
		방해 여러 가지 일, 목표에 신경쓰며 한꺼번에 해내려 한다
	상실에 기반을 둔 선택	변인 는 내용
		대상 일이 어렵거나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새로운 목표를 찾
		변인 거나 중요한 한 두가지를 선택하여 실행
방해 일이 어렵거나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모두, 여러 가지를		
변인 해내려 한다거나 그냥 방치한다는 내용		
적정화 책략	대상 목표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끊임없이 모든 노력을 하며	
	변인 포기하지 않는 다는 내용	
	방해 목표나 계획한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잘 되	
변인 지 않을 경우 쉽게 포기하고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보상 책략	대상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에 다치면 주변의 도	
	변인 움, 다른 방법을 찾고 더 노력을 한다는 내용	
	방해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그대로 받아들여 혼	
변인 자 극복하려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려하지 않으며 노		
력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조사는 2001년 3월 - 5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및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J 복지관, W 복지관을 이용하는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300부를 배부하여 280부를 회수하였고 그중 기재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4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dows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고 각각의 연구문제에 대해 <연구문제 1>은 t-test, ANOVA와 Duncan 사후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2>는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3>은 비계층적 k-평균군집 분석을 통하여 집단을 구분한 후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여기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다중응답을 포함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연령	60-65세미만	90(35.4)	학력	중졸이하	84(33.3)	
	65-70세미만	102(40.2)		고졸	105(41.7)	
	평균	70-75세미만		54(21.3)	초대졸이상	63(25.0)
	66.7세	75세이상		8(3.1)	합 계	252(100.0)
	합 계	254(100.0)		종교	유	187(75.7)
성별	남	159(63.3)	무		60(24.3)	
	여	92(36.7)	합 계		247(100.0)	
	합 계	251(100.0)	직업	유	43(17.1)	
결혼지속	35년미만	31(12.4)		무	208(82.9)	
	연수	35-45년미만		138(55.2)	합 계	251(100.0)
	평균	45-55년미만	71(28.4)	건강 상태	매우좋다	10(4.0)
41.5년	55-65년미만	10(4.0)	좋다		82(32.5)	
합 계	250(100.0)	보통이다	143(56.7)			
동거가족	독거	14(5.5)	나쁘다		17(6.7)	
	부부	137(53.9)	매우나쁘다		0(0.0)	
	결혼한 큰아들	33(13.0)	합 계	252(100.0)		
	결혼한다른아들	6(2.4)	경제적 상황	매우좋다	7(2.9)	
	결혼한 딸	4(1.6)		좋다	26(10.8)	
	미혼 자녀	46(18.1)		보통이다	187(77.9)	
시설	0(0.0)	나쁘다		10(4.2)		
기타	14(5.5)	매우나쁘다		10(4.2)		
합 계	254(100.0)	합 계	240(100.0)			
결혼상태	초혼	188(79.3)				
	별거 후 독신	6(2.5)				
	이혼 후 독신	0(0.0)				
	이혼 후 재혼	0(0.0)				
	사별 후 독신	38(16.0)				
	사별 후 재혼	5(2.1)				
	합 계	237(100.0)				

주) 무응답에 따라 문항마다 사례수에 있어 차이가 있음.

연령은 평균 66.7세이며,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연령은 65-70세로 40.2%를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자 노인이 63.3%로 여자노인인 36.7%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혼지속연수는 평균 41.5년이며 지속연수가 35-45년이 5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 있어서, 부부만 같이 산다는 문항이 5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미혼 자녀와 동거가 18.1%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현재의 결혼상태에 있어서 초혼이 7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사별 후 독신이 16.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재혼과 이혼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41.7%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위는 중졸이하가 33.3%, 초대졸이상이 25.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설문지의 특성상 글을 읽고 직접 체크를 해야 하므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종교에 있어서는 종교의 종류보다는 종교의 유무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여겼으며 조사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75.7%로 없는 경우인 24.3%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직업은 없는 경우가 82.9%로 있는 경우보다(17.1%)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년의 나이가 60세이하이므로 예상했던 바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 5점척도를 사용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평균은 3.34점이므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의 경우도 건강상태와 동일하게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평균점수는 3.04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내가 참 잘 살았어, 혹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인지 묻는 문항에 대해 다중응답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2>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4-2> 성공적인 노화관련 문항(다중응답)

변인	내용	N (%)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생각	건강할 때	212(28.9)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때	74(10.1)
	자손이 잘될 때	145(19.8)
	부부가 오래도록 해로할 때	108(14.7)
	사회적으로 명예획득 시	42(5.7)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65(8.9)
	가족들로부터 존경받을 적	83(11.3)
	생각한적 없음	4(0.5)
	기타	0(0.0)
	합계	733(100.0)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건강할 때로 28.9%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손이 잘될 때로 19.8%를 차지하였다. 부부가 오래도록 해로할 때는 14.7%로 나타났으며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때는 각각 11.3%, 10.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8.9%),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었을 때(5.7%),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경우(0.5%)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노화관련 문항을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자손이 잘되거나, 부부관계에서의 만족, 가족들로부터 존경 등 노인들은 주로 가족관계 내에서의 만족을 통해 삶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가족관계내에서 만족이 있는 후 사회적인 활동 및 경제적인 상황 등에서 만족을 얻음으로써 삶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SOC 책략 수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SOC 책략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⁴⁾, 성별, 결혼연수⁵⁾, 동거가족⁶⁾,

4) 연령에 대한 구분은 편의상 60-65세미만, 65-70세미만, 70-75세미만, 75세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5) 결혼 연수에 대한 구분은 35년미만, 35-45년미만, 45-55년미

배우자 유무⁷⁾, 학력, 종교유무, 직업유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하위 영역별 (선택, 적정화, 보상책략) 책략과,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전체 SOC 책략수준을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서 t-검증, 일원변량분석, 그리고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표 4-3>에 제시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SOC 책략수준과 선택, 적정화 책략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보상책략수준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75세 이상의 높은 연령에서 특히 보상책략 사용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의 고령이 될 경우에는 일이 어렵거나 잘 되지 않을 경우 혼자서 극복하려하기 보다는 주변의 도움,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결혼지속연수에서는 전체 SOC 책략 사용수준, 선택, 보상책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SOC 책략 경우 45-55년 미만의 결혼 지속 연수를 가진 노인들의 경우 가장 낮은 책략 사용 수준을 보였으며 선택, 보상에서도 낮은 수준의 책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책략 사용수준을 보이는 연수는 결혼 지속연수가 가장 높은 55-65년미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 지속 연수가 55년 이상 된 가장 긴 결혼 생활을 한 경우에 SOC 책략을 많이 사용하거나 45년 미만의 경우 SOC 책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54년의 연수를 가진 경우에는 책략의 사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성공적인 노화를 할 가능성이 가장 낮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시기의 노인들에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더 많은 주위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보여진다.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노인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부부만 생활하는 경우보다 전체, 선택, 적정화, 보상 책략의 사용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유무에 있어서는 적정화, 보상 책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적정화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의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없을 경우 계획하고 목표한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

만, 55-65년미만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6) 동거가족의 경우는 크게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거인 경우, 부부만 생활하는 경우, 기혼·미혼등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시설의 경우로 하였다.
7) 질문지 내용 중 결혼상태의 문항의 여섯가지 결혼 상태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탁월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도움을 받게되므로 보상책략의 사용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SOC 책략

변인	구분	사례 수	전체	선택	적정화	보상
연령	60-64세	90	30.69(10.60)	15.42(5.34)	8.12(3.08)	7.14(3.07) ^a
	65-69세	102	30.93(10.41)	15.60(5.83)	8.35(2.91)	6.98(2.89) ^a
	70-74세	54	28.78(11.69)	14.50(6.03)	8.87(3.50)	5.40(3.55) ^b
	75세이상	8	37.50(5.58)	19.25(3.62)	9.00(1.41)	9.25(2.43) ^b
	계	254	F=1.68(n.s.)	F=1.73(n.s.)	F=0.77(n.s.)	F=5.79***
성별	남	159	31.19(11.45)	15.82(5.91)	8.47(3.44)	6.90(3.30)
	여	92	30.00(9.17)	14.96(5.17)	8.36(2.33)	6.68(2.95)
	계	251	t=0.86(n.s.)	t=1.17(n.s.)	t=0.28(n.s.)	t=0.52(n.s.)
결혼 지속연수	35년미만	31	31.03(5.78) ^a	15.77(3.18) ^a	8.39(1.99)	6.87(2.31) ^a
	35-44년	138	33.17(10.05) ^b	16.67(5.35) ^{ab}	8.80(2.87)	7.70(2.95) ^b
	45-54년	71	25.93(12.00) ^b	13.13(6.40) ^{ab}	7.83(3.70)	4.97(3.23) ^b
	55-64년	10	33.50(6.87) ^b	16.20(5.25) ^b	9.20(1.32)	8.10(2.51) ^b
	계	250	F=8.19***	F=6.67***	F=1.82(n.s.)	F=13.97***
가족형태	독거	14	34.50(6.22)	17.50(2.18)	9.29(2.05)	7.71(3.45)
	부부	137	31.03(11.70)	15.78(6.17)	8.18(3.29)	7.07(3.23)
	자녀와함께	103	29.79(9.65)	14.65(5.22)	8.58(2.87)	6.25(3.03)
	계	254	F=1.60(n.s.)	F=2.18(n.s.)	F=1.13(n.s.)	F=2.63(n.s.)
배우자유무	있다	193	31.00(11.54)	15.66(6.12)	8.21(3.22)	7.12(3.17)
	없다	44	30.34(6.13)	15.34(3.37)	9.43(2.10)	5.57(3.11)
	계	237	t=0.367(n.s.)	t=0.34(n.s.)	t=-2.40*	t=2.95**
학력	중졸이하	84	29.10(8.42)	14.32(4.56) ^a	8.88(2.65) ^a	5.89(3.02) ^a
	고졸	105	32.30(10.25)	16.61(5.55) ^a	8.55(2.67) ^b	7.13(3.10) ^b
	초대졸이상	63	29.63(13.62)	14.86(6.88) ^b	7.49(3.99) ^b	7.29(3.32) ^b
	계	252	F=2.42(n.s.)	F=4.27*	F=3.97*	F=4.86**
종교유무	있다	187	31.68(9.46)	15.89(5.06)	8.75(2.77)	7.04(3.09)
	없다	60	27.93(13.17)	14.28(7.11)	7.60(3.60)	6.05(3.27)
	계	247	t=2.41*	t=1.93(n.s.)	t=2.59**	t=2.12*
직업유무	있다	43	30.81(7.13)	15.44(4.67)	8.30(1.61)	7.07(2.22)
	없다	208	30.55(11.35)	15.42(5.90)	8.43(3.31)	6.70(3.35)
	계	251	t=0.15(n.s.)	t=0.02(n.s.)	t=-0.25(n.s.)	t=0.70(n.s.)
건강상태	나쁘다	17	29.00(10.57) ^a	14.18(5.21) ^a	7.82(2.94) ^a	7.00(3.61) ^a
	보통이다	143	28.31(9.90) ^a	14.10(5.44) ^a	8.10(3.08) ^a	6.11(2.97) ^a
	좋다	87	33.29(11.16) ^a	17.20(5.61) ^a	8.67(3.11) ^a	7.43(3.21) ^a
	매우좋다	10	43.00(4.19) ^b	21.60(1.78) ^b	11.30(1.06) ^b	10.10(1.97) ^b
	계	252	F=9.31***	F=10.50***	F=3.93**	F=7.43***
경제적상황	매우나쁘다	10	30.00(3.46) ^a	17.00(1.76) ^a	8.60(1.26)	4.40(0.84) ^a
	나쁘다	10	33.10(8.09) ^a	17.80(4.54) ^a	8.20(2.35)	7.10(2.51) ^{ab}
	보통이다	187	30.26(10.81) ^a	15.19(5.68) ^a	8.38(3.25)	6.68(3.21) ^b
	좋다	26	34.35(8.96) ^a	17.12(4.88) ^a	9.08(2.19)	8.15(2.68) ^b
	매우좋다	7	44.71(7.85) ^b	22.57(3.36) ^b	11.43(1.51)	10.71(2.98) ^c
계	240	F=4.15**	F=4.19**	F=1.95(n.s.)	F=5.68***	

n.s.=no significant *p<.05 **p<.01 ***p<.001

학력에서는 전체 사용수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택, 적정화, 보상 책략에서는 각각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선택과 보상 책략의 경우 중졸이하의 경우에 책략 사용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고졸이상의 경우에 책략의 사용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안지연(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적정화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책략 사용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이상의 학력에서는 일을 한꺼번에 하려하지 않으며 자신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중요한 것부터 하려하며 주변에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경향이 중졸이하의 경우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학력이 낮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유무에 관해서는 전체 사용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전체적인 책략을 사용하는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적정화와 보상책략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두가지 책략에서 모두 종교가 있을 경우에 책략을 사용하는 정도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종교를 가지는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나며 종교에 대해 큰 비중을 느끼며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60세 이전에 대부분 정년을 맞이하게 되므로 직업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SOC 책략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직업이 60세 이후의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대부분 무직상태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SOC 책략 사용수준 뿐만아니라 각각의 책략에 대해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건강할수록 모든 책략을 사용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Bradley & Specht(1999), Crawford(1999)의 성공적 노화의 의미 및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 안지연(1997)의 연구에서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SOC 책략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적정화 책략을 제외한 선택, 보상 책략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전체적인 SOC 책략의 사용수준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을수록 SOC 책략의 사용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상책략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주변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인 SOC 책략에 있어서는 결혼지속연수,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경제적 상황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충족되어 성공적인 노화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복지정책에서 미흡한 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택 책략의 경우는 결혼지속연수, 학력,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것부터 목표나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되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경우 결혼연수, 학력, 건강상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적정화 책략의 경우는 선택한 목표, 계획을 수립하는데 끊임 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배우자, 학력, 종교, 건강에서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상 책략의 경우는 다른 책략과는 달리 연령, 결혼 지속 연수, 배우자 유무, 학력, 종교유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등 여러 가지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이나 계획했던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변의 도움, 다른 대안을 생각할 경우 위에서 나타난 변인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3.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측정하는 SOC 책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성별, 학력, 배우자 유무, 종교유무, 직업유무, 결혼연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변인 중에서 배우자 유무, 종교유무, 직업유무는 명목척도이므로 가변수⁸⁾처리하였다.

또한 독립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간 상관관계(<표 4-4>)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에 투입될 독립변인 중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연령과 결혼지속연수로 $r=0.82$ 로 매우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을 모두 회귀식에 투입할 때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독립변인중에서 연령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이 결혼지속연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와 연령은 회귀식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투입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0.81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음의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변인들이 상호 독립적임을 예견할 수 있으며, 독립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4-4>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전체 SOC책략과의 관계

관련 변인	전체 SOC	연령	성별	결혼 연수	배우자 유무	학력	종교 유무	직업 유무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전체 SOC	1.00									
연령	-0.05	1.00								
성별	0.05	0.29**	1.00							
결혼 연수	-0.15*	0.82**	-0.02	1.00						
배우자 유무	0.02	-0.08	0.18**	-0.13*	1.00					
학력	0.09	-0.26**	0.40**	-0.53**	0.35**	1.00				
종교 유무	0.15*	-0.15*	-0.21*	-0.14*	-0.08	0.10	1.00			
직업 유무	0.01	-0.27**	0.15	-0.22**	0.10	0.03	-0.04	1.00		
건강 상태	0.28**	0.00	0.09	-0.06	0.01	0.15*	-0.01	0.15*	1.00	
경제적 상황	0.17**	-0.12	-0.20**	-0.10	-0.01	0.15*	0.25**	-0.13*	0.30**	1.00

* $p < .05$ ** $p < .01$ *** $p < .001$

각 독립변인들이 성공적인 노화 책략(SOC 책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해 선정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본 회귀식에 투입된 각 독립 변인들간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각 회귀식의 회귀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⁹⁾.

1) 전체 SOC 책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전체 SOC 책략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은 건강상태와 종교유무로 나타났다(<표 4-5>).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상태($\beta=0.30$)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종교유무($\beta=0.16$)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전체적인 SOC 책략의 사용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OC 책략의 사용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책략이 성공적인 노화의 예측변인임으로 성공적인 노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들을 위한 무료건강프로그램 및 의료보호의 확대실시 등으로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종교생활을 통해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꼭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노인들을 위해 자신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가족, 대상을 만들도록 도와주며 가정방문 시스템 등이 활성화 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가변수화한 명목척도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 종교유무의 경우 종교가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 직업 유무에서 직업이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

9) 각 변수의 잔차의 독립성은 Durbin-Watson 계수로 판단할 수 있다. Durbin-Watson 계수는 0-4사이이며 2에 가까울수록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본 논문에 제시된 D-W 계수는 모두 2에 가까워 잔차간에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전체 SOC 책략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1. 건강상태	4.60	0.30	4.68***
2. 종교유무	4.12	0.16	2.58**
상수		12.90	
F값		13.89***	
R ²	.12		

*p< .05 **p< .01 ***p< .001

그리고 이들 독립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전체 SOC 책략 사용수준은 1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선택책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선택책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4-6>에 제시한대로 건강상태(β=0.31) 한가지로 나타났다.

<표 4-6> 선택책략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1. 건강상태	2.54	0.31	4.93***
상수		7.49	
F값		24.34***	
R ²	.10		

*p< .05 **p< .01 ***p< .001

이는 건강할수록 선택책략의 사용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변인의 선택책략에 대한 설명력은 10%이다.

SOC 책략의 경우는 각각의 하위책략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결된 것으로 선택이 있은후에 적정화, 보상의 책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이라는 것은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여지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3) 적정화 책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적정화 책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상태, 학력, 결혼연수, 종교유무의 네가지 변인으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학력(β=-0.30)이었으며 다음으로 건강상태(β=0.24), 결혼연수(β=-0.19), 종교유무(β=0.16)순이었다.

이는 즉 노인이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할수록, 결혼연수가 짧을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 적정화 책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들 세 변인의 적정화 책략에 대한 설명력은 14%이다.

<표 4-7> 적정화 책략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1. 건강상태	1.11	0.24	3.94***
2. 학력	-0.30	-0.30	-4.19***
3. 결혼연수	-0.09	-0.19	-2.66**
4. 종교유무	1.15	0.16	2.49**
상수		11.01	
F값		9.64***	
R ²	.14		

*p< .05 **p< .01 ***p< .001

건강하고 종교가 있는 경우, 학력이 높은 경우보다 학력이 낮을수록 오히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모든 노력을 하며 포기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지며 결혼의 연수가 짧을수록 그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보상책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보상책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경제적 상황, 학력, 건강상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보상책략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는 <표4-8>에 제시된 것처럼 경제적 상황(β=0.25), 결혼연수(β=-0.17), 건강상태(β=0.14)순이었다.

<표 4-8> 보상 책략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t값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1. 건강상태	0.64	0.14	2.12*
2. 결혼연수	-0.08	-0.17	-2.84**
3. 경제적상황	1.13	0.25	3.83***
상수		4.79	
F값		12.61***	
R ²	.14		

*p< .05 **p< .01 ***p<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결혼연수가 짧을수록, 건강할수록 보상책략을 사용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상황이 좋고, 결혼연수가 짧고, 건강할 경우에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Easterlin(1984)은 부유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소득수준이 주관적 안녕감에 끼치는 영향력도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적인 노화를 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는 건강, 종교, 학력, 결혼연수, 경제적 상황 등이었으며 성공적인 노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전체 SOC 책략의 사용수준에 있어서는 건강할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성공적인 노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각 책략에 있어서는 선택책략의 경우는 건강할수록 영향력이 커졌으며, 적정화 책략의 경우는 건강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에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보상책략의 사용에는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할수록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의 경우는 Rowe & Kahn, Baltes & Blates의 모델 모두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연구(안지연, 1997; 성혜영·유정현, 2002)에서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위의 결과에서 통계적 수치가 낮고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과의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에 유의미할 것으로 여겨 결과를 살펴보게 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각 책략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인이 건강상태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점차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 있어서 건강이라는 것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변인임이 나타났다.

또한 선택책략의 경우에는 연령증가에 따른 상실분에 있어 높은 수행을 할 수 있는 몇몇의 특정 영역을 선택하고 그 외의 다른 영역은 무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만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 개인적인 자원에 대한 집중,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적응기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택한 영역에 있어서의 수행을 최대화하는 데는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보다는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건강과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종교가 더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보상 즉 외부의 도움, 심리학적 보상기제, 지식에 기반을 둔 실용적 책략의 사용수준을 위해서는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학력과 경제적 측면, 건강이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비교할 수 있다.

여러 연구(Bradley & Specht, 1999; Crawford, 1999; Vaillant & Mukamal, 2001; 안지연, 1997)에서도 건강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점차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성공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나 Rowe & Kahn(1998)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발한 인생참여를 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라는 견해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기본적인 측면에서의 변인(건강, 경제적 측면)들을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분야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루빨리 정책적인 부분에서 노령화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4.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전체 SOC 책략 수준을 비계층적 K-평균 군집분석(10)에 의해 상중하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성공적인 노화문항과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SOC 책략수준의 점수를 상중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생각('참 잘 살았다, 만족할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인가?)에 있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는 SOC 책략이 선행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성공적인 노화의 예측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SOC 책략의 사용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SOC 책략의 사용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부터 가장 낮은 집단까지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성공적인 노화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부터 가장 낮은 집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단간의 경향을 보려는 것이다. 결과를 통해 SOC 책략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3개의 집단을 살펴보면 <표 4-9>에 제시된 바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중 집단으로 점수분포는 20-34점이며 51.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상 집단으로 점수는 35점이상이며 37.6%를 차지하였다. 하 집단은 10.9%이며 20점 이하의 점수로 이루어졌다.

<표 4-9> K-평균 군집분석에 대한 집단분류

분류	점수분포	N (%)
상	35-48	100(37.6)
중	20-34	137(51.5)
하	4-20	29(10.9)
합계		266(100.0)

세 집단으로 구분한 뒤 성공적인 노화 관련문항에 관한 경향을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상 집단은 SOC 책략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으로 SOC 책략이 성공적인 노화의 예측변인임을 감안할 때 성공적인 노화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며 중 집단은 세 집단 중 중간의 점수를 나타내는 집단이다. 하 집단은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 중, 하 집단의 경우 공통적으로 건강할 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는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점수가 가장 높은 상 집단과 중 집단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두 번째로 자손이 잘 되는 것이었으며 3, 4순위에서 가족으로부터 존경받고, 부부

10) 비계층적 군집분석법은 군집화할 대상이 다수인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집화의 결과에 의거하여 미리 군집의 수를 정하여 군집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거리가 가깝고 유사한 것끼리 집단화하는 것이다.

가 해로할 때만 다르게 나타났을 뿐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하 집단의 경우는 상, 중집단과 같이 건강할 때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다음 순위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할 때,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을 때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을때가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일때는 응답자가 없었다.

이를 통해 점수가 높은 상집단과 중간인 중집단의 경우는 가족관계내(가족의 존경, 부부해로 등)에서의 만족을 우선시 하였으며 그 후에 사회적인 측면(사회활동, 명예)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ues & Masesar(1999)의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에 어떤 사항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변 중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과 Vaillant와 Mukamal(2001)의 가족 응집력, 결혼 안정성 등의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노화에 있어 가족관계의 측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점수가 가장 낮은 하 집단은 성공적인 노화의 측면의 예측변인인 SOC 책략의 사용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주로 가족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보다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건강,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군집에 의한 성공적인 노화관련 문항 경향

내 용	상 (35-48점)	중 (20-34점)	하 (0-19점)	합계
	N(%)	N(%)	N(%)	N(%)
건강할때	76(25.5)	112(30.1)	24(38.1)	212(28.9)
사회활동에 적극적일때	31(10.4)	43(11.6)	-	74(10.1)
자손이 잘될 때	62(20.8)	75(20.2)	8(12.7)	145(19.8)
부부가오래도록 해로할 때	40(13.4)	57(15.3)	11(17.5)	108(14.7)
사회적으로 명예 획득 시	23(7.7)	13(3.5)	6(9.5)	42(5.7)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27(9.1)	27(7.3)	11(17.5)	65(8.9)
가족들로부터 존경받을 때	36(12.1)	44(11.8)	3(4.8)	83(11.3)
생각한적 없음	3(1.0)	1(0.3)	-	4(0.5)
기타	-	-	-	-
합계	298(100.0)	372(100.0)	63(100.0)	733(100.0)

이렇듯 성공적인 노화를 하는데 있어 각 집단별로 우선시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즉 성공적인 노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므로 노화를 준비하는데 있어 노인들에게 가족관계 및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정보 및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결과 및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 및 본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Baltes & Baltes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성공적인 노화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SOC 책략에 기반해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는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기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서구적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강조가 노화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문화가 가지는 귀중한 강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개념 및 변인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 맞는 새로운 노화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노인들이 성공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공적인 노화의 예측변인인 SOC 책략 관련 변인에 대해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한 결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건강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노인기에 있어서는 건강에 대한 것이 다른 변인에 비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노령화 될수록 의료비의 증가 또한 빨라지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능력 있는 소수의 노인 외에 대다수의 노인들은 점차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가족의 노인부양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저소득 노인들에게 제한된 의료서비스는 다른 계층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공적인 노화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SOC 책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성별, 배우자, 직업등은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학력, 종교, 결혼연수, 경제적 상황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경제적 상황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연구(안지연, 1997; 성혜영, 유정현, 2002)에서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외국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 노인 복지에 대한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노인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하며 노령화 사회에 있어 대상을 여러 계층으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연수가 길어질수록 SOC 책략의 사용수준이 낮아지므로 노인들이 오랜 결혼생활동안 부부간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 끊임없이 노력하며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노년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 사회활동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서 주로 가족관계 내에서의 만족이 중요한 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신체기능이 어느정도 감소하거나 제저되더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가족과 상호작용 하도록 하며 노인이 있는 가족구성원들은 노인들에게 좀더 많은 관심을 주며 함께 대화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한국 노인 전체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해석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만을 포함시켰다. 개인내적인 변인, 심리적인, 가족적인 측면에서의 변인이 포함되지 못한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성공적인 노화의 예측변인으로 사용된 SOC 척도의 주된 내용은 심리화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SOC 척도의 점수로 성공적인 노화라고 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Baltes & Baltes의 성공적인 노화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으며 Rowe & Kahn의 성공적인 노화 개념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활동, 사회참여등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찾으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SOC 책략이 성공적인 노화의 예측변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서 SOC 책략이 예측변인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개념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서 국·내외 논문과의 비교를 통해 국외의 연구를 통해 얻어낸 결과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새로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되거나 영향력이 있는 변인을 토대로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예비노인,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길 원하는 현재의 노인들을 대상으로하는 노인생활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을 기초로 하여 미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OC 척도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가 요구되며, 또한 비교문화적인 연구를 실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공적

노화의 여러 가지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중요시되었던 건강, 경제관련 변인에 있어서는 외국의 연구에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등 외국과 다른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비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척도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성공적인 노화의 관련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만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심리적·사회적, 가족적인 변인을 추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공적인 노화를 측정하는데 있어 단순히 SOC 책략 사용정도만을 재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그 책략을 자발적으로 하는지, 보조적인 입장에서 하는지, 주체적인 입장에서 하는지 등 좀더 세밀하고 심도있게 구분하여 면접·조사할 필요가 있다.

- 접수 일 : 2003년 1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4월 20일

【참 고 문 헌】

강주령(1990). 노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영수(1993). 노화의 적응에 관한 심리·사회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희(1988).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희(1989).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선(1996). 중고령근로자의 성공적인 직무적응에 관한 연구 -Baltes의 성공적인 노화이론의 적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현(1996). 가족지지가 남자노인의 은퇴스트레스와 은퇴후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현(1996). 가족지지가 남자노인의 은퇴스트레스와 은퇴후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1998). 성인의 노화 인식 경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형진(2001). 한글 SPSS 10.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서울 : 형설출판사.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혜영·유정현(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2, 75-93.

안지연(1997).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적정화·보상책략과 대처행동양식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

- 사학위 논문.
- 윤 진(1991).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정영찬·강주희·전상현·변등구(2002). *파라하는 통계분석*. 서울: 크라운출판사.
- 한경혜(2000). 신노년층 문화와 성공적 노화. *한국가족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21세기 새로운 가족문화*, 5-10.
- 한임섭(1987).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숙자(1999). 노년학 개론. 서울:하우.
- 홍승우(2001). 노인의 일상생활과 성공적인 노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현망(2002). 성공적인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혜자(1995). 노년기 생활적응을 위한 노인교육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raham, J. D. & Hansson, R. O. (1995). Successful Aging at Work : An Applied Study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Through Impression Management. *Journal of Gerontology*, 50(B), 94-103.
- Backman, L. & Dixon, R. A. (1992). Psychological compensation : A theoretic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12.
- Baltes, M. & Carstensen, L. (1996). The process of successful aging. *Aging and Society*, 16(1), 397-422.
- Baltes, M. M. & Lang, F. R. (in press). Everyday functioning and successful aging : The impact of resources. *Psychology and Aging*, 12(3), 433-443.
- Baltes, M. M. (1996). *The many faces of dependency in old ag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M. M., Kyhl, K. P. & Sowarka, D. (1992). Testing for limits of cognitive reserve capacity : A promising strategy for early diagnosis of dementia?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7, 165-167.
- Baltes, P. B. (1997). On the Incomplete Architecture of Human Ontogeny :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Foundation of Developmental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2(4), 366-380.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pp. 1-34).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gstrom, M. J., & Holmes, M. E. (2000). Lay Theories of Successful aging after the Death of a Spouse: A Network text Analysis of Bereavement Advice. *Health Communication*, 12(4), 377-406.
- Crawford, E. L. (1999).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Coping Strategies, Perceived Control and Successful Aging.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 & Engineering*, 59, 64-85.
- Fisher, B. J., & Specht, D. K. (1999). Successful Aging and Creative in Later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3(4), 457-472.
- Ford, A. B., Haug, M. R., Stange K. C., Gaines, A. D., Noelker, L. S., & Jones, R. K. (2000). sustained Personal Autonomy: A Measure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Aging & Health*, 12(4), 470-489.
- Freund, A. M. & Baltes, P. B. (1998).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strategies of Life Management: Correlations with Subjective Indicators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y & Aging*, 13(4), 531-543.
- Guse, L. W., & Masesar, M. A. (1999). Quality of Life and Successful Aging in Long-Term Care: Perceptions of Resident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0(6), 527-539.
- Heckhausen, J. & Schulz, R. (1993). Optimization by selection and compensation : Balancing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in life-spa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6, 287-303.
- Kubzansky, R. D., Berkman, L. F., & Seeman, T. E. (2000). Social Condition and Distress in Elderly Persons: Findings From the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 238-246.
- Riggs, A. (1997). Men, Friends and Widowhood: Towards Successful Aging. *Australian Journal on Ageing*, 16(4), 182-185.
- Schulz, R. & Heckhausen, J. (1996). A life-span model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t*, 51, 702-714.
- Vaillant, G. E., & Mukamal, K. (2001). Successful Ag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